2026 사회적 신뢰도 조사 일반국민 47.1% "한국교회 극우"평가

■기획특집-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 1 —— 송오식 (광주기윤실 공동대표,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교회의 강단이 훼손되고, 세상이 교회를 '극우집단'으로 평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있다. 광주기윤실 4월 세미나에서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발제한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미션21이 4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단 정치화는 '말씀'을 인간 선동으로 대체 심각한 왜곡 낳아
통계적 진실은 '과대 대표성' … 실제 이념지형은 중도 보수
정치적 '신앙' 인가 신앙적 '정치' 인가? 반드시 제기해 볼 문제

교회와 국가는 존립 목적, 운영 원리, 지향점에서 근본적 차이

▲ 왜 지금 한국교회의 정치참여를 논하는가?

시대적 배경으로 극단적 진영논리에 갇힌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주소를 들 수 있다.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47.1%가 한국교회를 극우(극단적 정치세력)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대중의 편견을 뒤집는 통계적 진실은 소수의 '과대 대표성'이라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극우는 단 13.5%이고 진보는 25.7%, 중도 37.8%, 보수 36.5라는 점이다. 실제 이념 지형은 중도 중심이다. 한국교회는 이념적으로 극단화된 단일집단이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건전한 상식을 공유하는 다수의 성도들이 존재한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2026년 기준 19%로,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국민의 62.3%는 교회가 공동의 이익보다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 목회자들이 꼽은 2025년 한국교회 키워드 1순위가 '양극화'였다. 이는 지난 수년간 '다음 세대'나 '영성 회복'이 1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정치·사회적 갈등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시사한다. 목회자의 72%가 교회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인식 격차의 문제가 있다. 성도의 52.4%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지만, 목회자의 59.9%는 "사회적 불의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내야 한다"고 답해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극우' 혹은 '극좌'라고 규정한 목회자들의 경우, 80~90% 이상이 교회 이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지하고 있어, 양극단의 목소리가 교회를 주도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여기에서 정치적 '신앙'인가, 신앙적 '정치'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본다.

'정치적 신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신앙의 자리를 차지한 경우이다. 신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명분으로 전락한다. 이 경우 내 정치적 견해와 다른 사람은 '악'이자 '사탄'으로 규정한다. 종교적 언어(심판, 구원, 사탄)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신앙이 가진 초월성과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의 하수인이나 특정 진영의 전위부대로 전락한다.

'신앙적 정치'란 신앙적 가치(사랑, 정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앙이 '뿌리'이고 정치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이다. 특정 정파의 이익보다 성경적 가치(소외된 자 보호, 공의로운 재판, 인권, 공동체 전체의 이익)를 우선한다. 자기성찰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내 정치적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내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신앙적 양심에 따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예언자적 기능'을 유지한다.

▲ 신학과 법학적 관점에서 본 정교분리의 원칙

칼빈의 두 정부론 (Duplex Regimen) 은 내면의 양심과 외면의 질서, 그 관할권을 구분한다.

두 정부론 (Duplex Regimen, Two Governments)에서 칼빈은,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정부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영혼과 내면을 다스리는 '영적 정부(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행동과 사회질서를 다스리는 '국가 정부(국가)'이다.

• 양자의 독립성: 교회는 국가의 부속물이 아니며, 국가는 교회의 하수인도 아니다. 각자는 고유한 영역(Sphere)을 가진다.

• 상호 보완: 국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환경을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가 공의로운 법을 세울 수 있도록 영적·도덕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 교회의 역할로서 영적 파수꾼과 시민 교육 : 칼빈에게 교회의 정치 참여는 '말씀을 통한 비판과 권고의 형태를 띤다. 교회의 강단은 사회의 불의나 통치자의 타락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Iustitia)와 형평(Aequitas)이 무너질 때,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이를 지적해야 한다(예언자적 외침).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킨다. 즉, 교회가 직접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과 시민을 길러내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칼빈은 두 정부를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배척하지 않는 관계로 설정하였다. 당시 재세례파의 극단적 무정부주의와 가톨릭의 교황 지상주의를 동시에 경계했다. 재세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었으니 세상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영적 정부와 정치적 정부는 별개의 것'이므로 '신자는 마땅히 세속 법에도 순복해야 한다'고 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31장 4항 : 교회의 '비정치성'과 '영적 독립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를 간섭해서도 안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허히 청원하거나 또는 국가 위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하여 할 수 있다(눅 12:13-14; 요 18:36)."

교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과 '영적 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지, 세속 정권의 창출이나 이익 집단의 대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존립 목적, 운영 원리, 그리고 지향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존립 목적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동체 내의 갈등을 법치주의에 따라 조정하고, 경제적 번영, 복지 증진, 교육 등 눈에 보이는 현실적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특정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영혼 구원, 내면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지향점에서 국가는 지상의 평화와 번영, 교회는 구원과 영적 회복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가치 기준에서도 국가는 법과 합리성, 공익에 두고 있다면 교회는 교리와 신앙, 영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 제20조 제2항 : 정교분리의 헌법적 가치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보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제2항).

헌법학자들은 위 규정을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비편향성,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금지,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보장으로 파악한다. 학자들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두 가지 모델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미국(수정헌법 제1조)과 같은 엄격 분리형과 독일, 한국과 같은 협력적 분리형으로 구별한다. 협력적 분리형은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교육 등 공익적 영역에서 협력을 인정한다.

권한의 남용(Ultra Vires) : 강단(Pulpit)이 정치적 전시장으로 전락할 때 영적·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영적 문제 : 강단의 정치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선동으로 대체하는 심각한 왜곡을 낳게 된다. 복음이 보편적 구원의 소식에서 특정 정치 진영의 '부분적 논리'로 축소된다.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적 가치'보다 '정치적 효용성'을 우선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성숙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법적 문제 : 정교분리의 원칙의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위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문제, 종교단체의 혜택의 정당성 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

광주기윤실 세미나에서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HTUS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63회 동문대회와 장한동문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

◈ 일시 : 주후 2026년 5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

강사 최광우 목사
· 현 양림교회 위임목사
· 현 서울장신대학교 이사
· 전 경기노회 노회장
· 장신대 목회신학박사

총동문회장 강정원 목사
· 현 안남의교회 위임목사
· 현 총회서부지역훈련원부원장
· 현 총회부흥전도단 부단장
· 전(통합) 전남노회 노회장

총동문대회 및 총회 일정
· 09:30 ~ 10:00 접수
· 10:00 ~ 10:30 총동문회 총회
· 10:30 ~ 11:30 총동문대회 개회 및 세미나
· 11:30 ~ 12:20 장한동문상 시상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 12:20 ~ 13:30 점심식사(구내식당)

정한동문상 시상 부문
학교발전, 교회 부흥, 목회, 학술, 선교 교육, 사회복지, 해외 선교, 농어촌부문

고문 남정규 김용한 유한귀 정려성 지원재 박일성 송정용 박금호 이성수 김유수 임부성 임채수 송재식 최원탁 박종호 고만호 김재영 김민식

전회장단
■ 51대 임준태 목사(하 남) ■ 57대 남택률 목사(광주유일)
■ 52대 신정호 목사(동 신) ■ 58대 서진선 목사(광주예향)
■ 53대 김민식 목사(동 광) ■ 59대 최정원 목사(광주소망)
■ 54대 서순석 목사(금호밸엘) ■ 60대 김준영 목사(대중교회)
■ 55대 이충일 목사(주내암) ■ 61대 장경태 목사(순천본향)
■ 56대 리종기 목사(빛과사랑)

각 노회 및 지역대표
■ 전 북 : 강동호(로 뎀) ■ 전 주 : 이성열(혁신동신) ■ 군 산 : 김대성(다 운) ■ 익 산 : 김혁중(서 강)
■ 전북동 : 조인희(진 도) ■ 남 원 : 서명원(남 생) ■ 전 서 : 박형식(신 광) ■ 순천남 : 송은석(덕 흥)
■ 광 주 : 신만섭(군서제일) ■ 광주동 : 강 용(온누리비전) ■ 순 천 : 최동균(토 지) ■ 땅 끝 : 이하순(완도중앙)
■ 순 서 : 배광일(제 암) ■ 여 수 : 황병호(주 사 랑) ■ 목 포 : 김희진(창 매) ■ 충 청 : 고백인(성민제일)
■ 서 울 : 홍귀선(사 랑 의) ■ 대전서 : 박종철(세종유일) ■ 서울서남 : 명 훈(안산광성) ■ 경 기 : 최시천(향기나는)
■ 부산동 : 강중석(은 혜) ■ 함해이북 : 오경남(함해영광) ■ 천안아산 : 김수성(천안새로운) ■ 해 외 : 최인봉(태 국)

HTUS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61642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 (양림동) | Tel : 062)650-1552~3 Fax : 062)675-1552 | 사무총장 : 장하민 목사 010-3624-4754